

News

ECB "유로존 은행들, 내년 1월까지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뉴스핌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들에 최소 내년 1월까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직원 상여금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주문
ECB는 지난 3월 최소 오는 10월까지 배당금 지급을 동결하라고 주문했는데 기간을 연장..."본연의 임무인 대출에 주력하기 위해 유동성 여력을 활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

70조 코로나대출 이자상환까지 연장하나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 소상공인대출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9월30일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자납부도 연장할지에 관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금융권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원금 만기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납입도 유예하는 쪽에 다소 방점이 찍힌 언급

신한금융, 두산그룹 네오플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 두산그룹의 벤처캐피털 '네오플렉스' 인수를 추진...관계자, "최근 네오플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앞으로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인수 여부가 결정될 것"
(주)두산이 지분 약 97%를 보유한 두산그룹 계열사 네오플렉스의 인수금액은 700억원 정도로 알려져...신한금융은 그동안 벤처캐피털 확보를 위해 M&A 시장에서 대상을 물색

JB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이익 1,882억원 전년비 7.8% ↓

파이낸셜뉴스

JB금융,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제적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작년 대비 4.7%의 순이익 증대를 이룬 것"
지배지분 ROE는 10.7%, 그룹 연결 ROA는 0.81%...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으로 전년동기대비 0.66% 포인트 상승한 10.28%를 기록

채권 산다고 약속만해도 보험사 RBC 오른다

대한금융신문

금감원, 9월 30일부터 금리파생상품 거래도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자산류레이션 확대로 인정...'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도 포함
초장기채 과수요로 채권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보험사의 자산관리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기초자산 실물을 인수하는 금리파생상품만 허용...대표적으로 '채권 선도거래'

네이버, 미래에셋과 대출상품 낸다..."매장없는 소상공인 대상"

아시아경제

네이버,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 대상 대출 상품 내놓으며 전자상거래 · 핀테크 시장 공략 계획...독자적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으므로 미래에셋캐피탈과 손 잡기로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만드는 중...기존 평가대비 신용 1등급 2배 많아...라이선스 안 따고 제휴하는 이유는 더 혁신하기 위해"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판매사, 분기마다 운운사 점검

연합뉴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운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
앞으로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운 현황을 점검...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나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중"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M&A 계약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될 가능성...아시아나항공 주주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